

1.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 ‘ㄴ, ㄹ, ㅇ’은 유음이다.
㉡ ‘ㄱ, ㄴ, ㅋ’은 연구개음이다.
㉢ ‘ㄷ, ㅌ, ㅌ’은 치조음이다.
㉣ ‘ㄱ, ㅅ, ㅈ, ㅊ’는 후설모음이다.
㉤ ‘ㅅ, ㅆ, ㅎ’은 마찰음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호칭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편의 누나 → 형님
②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일컫는 말 → 춘부장(椿府丈), 춘장(椿丈), 춘당(椿堂)
③ 누나의 남편 → 차형
④ 자신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일컫는 말 → 자당(慈堂)

3. 다음 사잇소리 표기 단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댓값 ② 나랏님
③ 전셋집 ④ 만뚝국

4. 다음 훈민정음 제자원리 중 가획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 ① ㅂ ② ㅊ
③ ㄹ ④ ㄷ

5. 다음 중 키노드라마(kino-drama)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연극과 영화를 결합하여 하나의 줄거리를 이끌어 가는 극이다.
②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독서를 위해 쓴 희곡이다.
③ 원래는 음악을 반주로 한 오락적인 서민 연극을 가리키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주로 일상사를 바탕으로 하여 오락성을 제공하는 통속적인 극을 말한다.
④ 주인공의 행복이나 성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 극이다.

6. 다음 중 나이와 한자어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화갑(華甲) - 40세 ② 애년(艾年) - 50세
③ 산수(傘壽) - 70세 ④ 망백(望百) - 99세

7. 다음 <보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끄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니!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 ① 사회 현실을 풍자한 부조리극이다.
② 근대극이 뿌리를 내린 시기에 창작되었다.
③ 전통적인 사실주의 극문학이다.
④ 반공주의적인 목적극의 대본이다.

8.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첨가’, ‘자음 축약’, ‘자음군 단순화’ 등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에는 음운의 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음운의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교체’는 전자에 해당하지만, ‘첨가’, ‘탈락’, ‘축약’은 후자에 해당한다.

- ① 담요 ② 밖
③ 맨입 ④ 뉘

9.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궁도련님: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 세상의 어려운 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② 책상물림: 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③ 윤뚝뚝이: 사리에 어둡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④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서 아주 아무진 사람

10. 다음 <보기>를 참고할 때, 단어의 형성 방식이 나머지와 가장 다른 것은?

<보기>

‘-롭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일부 어근 뒤에 붙어 ‘그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일반적으로 ‘-롭다’의 경우 한자어 뒤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지만, 고유어 뒤에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기도 한다.

- ① 흥미롭다 ② 애처롭다
③ 경이롭다 ④ 가소롭다

11. 다음 중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가장 옳은 것은?

효녀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문안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① 磨斧爲針 ② 厚顏無恥
③ 浩然之氣 ④ 昏定晨省

12. 다음 대화에서 김 경장이 범한 어법 사용의 오류와 가장 유사한 것은?

김 경장: 여보세요.
이 경장: 여보세요. 최 경위님 계신가요?
김 경장: 지금 안 계신데요.
이 경장: 어디 멀리 가셨나요?
김 경장: 네, 지금 순찰 중이십니다.
이 경장: 순찰은 언제 끝나나요?
김 경장: 글썽요, 순찰 끝나고 팀원들과 면담이 계시다고 하셔어요.
이 경장: 네, 그럼 통화가 어렵겠군요.

- ① 소장님은 본청에 불임이 있으셔서 일찍 본청에 가셨습니다.
② 내일 목포역전 앞에서 만나자.
③ 선장님, 요청하신 서류 나오셨습니다.
④ 국장님, 과장님이 외부에 나갔습니다.

13. 다음 제시된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강산 풍월(江山風月) 거닐리고 내 백 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① 4음보 율격을 지닌 가사이다.
② 유교 사상인 충 사상이 드러나 있다.
③ 조선 전기의 강호가도(江湖歌道)가 잘 나타나 있다.
④ 여정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잘 드러나 있다.

14. 다음 작품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也

- <구지가(龜旨歌)>

- ① 조건-요구-위협-환기
② 환기-조건-요구-위협
③ 환기-요구-조건-위협
④ 요구-위협-환기-조건

15. 다음 중 <외래어 표기법>에 옳게 표기된 낱말들은 모두 몇 개인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
킬로칼로리(kilocalorie)
오셀로(Othello)
젤리(jelly)
카세트(cassette)
팡파르(fanfare)
아이섀도(eye shadow)
액세서리(accessory)

- ① 3개 ② 5개
③ 7개 ④ 모두 맞음

16.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관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관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17. 다음 글과 화자의 시점이 가장 유사한 것은?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 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 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새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 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 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 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 김동인, <감자>

- ① 단발머리를 나폴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 황순원, <소나기>
- ②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③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가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 ④ 그날 밤에도 몹시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틈을 형짚으로 막고 이불을 둘씩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 전영택, <화수분>

18.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맘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대개 그렇습디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든가 빔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다. 분개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 갈 때 그의 몸에서는 역겨운 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케 하긴커녕 외려 더욱더 난파케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은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털어 주었는지?”

“개수작 마! 그따위 이웃은 없다는 걸 난 톡톡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는 현관에 벗어 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꼭 눌러 참았다.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영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치였다.

“대문은 저쪽입니다.”

문간방 부의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비틀비틀 걷기 시작했다.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보았다.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철축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

- 윤홍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①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이 어두울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1인칭 서술자가 관찰 대상이 되는 인물을 서술하고 있다.
- ③ ‘나’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회유하고 있다.
- ④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인물이다.

19.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책 속에 유명한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갔을 때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도화지와 크레용을 아이들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부탁했다. “애들아, 아무거나 좋으니까 동물 그림을 그려 보렴.” 아이들은 처음으로 만져보는 흰 도화지가 신기한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 시간쯤 후에 선생님께서 “다 그린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며 아이들을 자상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저마다 손에 도화지를 높이 들고 자기들이 그린 그림을 앞다퉈 보여 주었다. 하지만 저자는 아이들의 그림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애는 도화지 한쪽 끝에 파리를 그렸다. 또 한 남자애는 아주 가느다란 두 다리를 지닌 새를 그렸다. 동물 그림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도대체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물고기나 밥그릇을 그렸다.

저자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면 멋진 코끼리나 기린이나 얼룩말을 그리려 거야.”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곳 주위에서 살고 있는 아이라면 동물을 보거나 동물에 대해 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도 아프리카 동물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동물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그림책도 없기 때문이다.

- ① 두 명의 아이만 동물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엉뚱한 것을 그렸다.
- ② 저자는 직접 탄자니아 아이들에게 동물 그림을 그려 보게 했다.
- ③ 아프리카 아이들이라도 야생 동물을 직접 보기는 어렵다.
- ④ 산업화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

20.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신표현주의 건축은 표현주의의 두 가지 강령 가운데 자연 유기성을 차용하여 그 의미를 현대 문명에 맞게 부활시킨 건축 운동이었다. 큰 방향은 현대 산업 사회의 기계 문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총괄하는 반문명 운동의 성격을 지녔으며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에서 이상적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차이도 보였다.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경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현주의가 연속되는 경향이였다. 표현주의 건축은 전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르 코르뷔지에의 말년에 콘크리트의 거친 표면 질감과 가소성을 이용하여 형태 변화가 심하고 강한 인상의 작품들을 남겼다. 이런 경향은 뉴 브루털리즘이나 표현주의로 분류된다. 표현주의 건축가 샤론은 1963년에 베를린 필하모니 콘서트홀을 남기는 등 전후에 왕성하게 활동하며 뒤늦게 표현주의의 완성을 이루었다.

둘째, 반문명 운동으로서 생태 건축과 일정한 연관성을 갖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의 자연 유기성 개념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타난 이 경향은 좁은 의미에서 신표현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유기성의 차용이 자연 찬양, 자연 회귀, 자연과의 조화 등 신비주의적 자연관을 배경으로 갖는 점에서 생태 건축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연관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러나 열 환경과 관련하여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정도와 자연과의 일체감의 정도 등이 약한 점에서 생태 건축과는 차이점을 갖는다.

셋째, 자연 유기성에서 진보하여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직접 차용하는 경향이다. 표현주의 건축에서 동일한 경향을 추구했던 핀스터린, 슈타이너, 멘델존 등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향이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생태 건축의 한 분파인 유기 건축이 되는 반면 형태에 치중하면 신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 신표현주의에서는 자연 유기 형태를 실제 건물로 구현하기 위해 세부적 기법을 정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형태주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낸다. 실제로 자연 유기 형태를 빗어내는 구체적 기법에서 사선, 예각, 기하 충돌, 수정체, 동굴, 폭파 형태 등 다양한 형식주의 또는 형태주의 기법들이 동원된다.

자연 유기 형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에서 형식주의의 한 종류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 경향은 앞의 두 번째 경향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으나, 자연 재료보다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 임재석,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

- ① 신표현주의 건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경향을 보이며,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 ② 자연 유기 형태를 건물 모습에 반영하는 경향의 차이에 따라 다른 분파에 속하게 된다.
- ③ 신표현주의 건축은 기계 문명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기계 문명을 활용했다는 한계도 있다.
- ④ 신표현주의의 세 가지 경향은 모두 가소성이 있는 콘크리트 등을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1. ③

㉠ ‘ㄴ, ㄹ, ㅇ’은 비음이고, ㉡ ‘ㄱ, ㅋ’은 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고, ‘ㄷ, ㅌ’는 후설 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다.

2. ④

자당(慈堂)은 타인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3. ②

사이시옷은 합성어에만 붙이는 것이다. ‘나라님’은 접사 ‘-님’이 붙은 파생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4. ③

‘르’은 ‘ㄷ, ㅇ’과 함께 이체자이다.

5. ①

키노 드라마란 무대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야외장면이나 활극 장면을 영화로 찍어 연극 중 무대 위 스크린에 삽입한 것을 뜻하는 용어로, ‘영화적 연극’ 또는 ‘연쇄극’이라고도 한다.

6. ②

화갑(華甲)은 61세, 산수(傘壽)는 80세, 망백(望百)은 91세를 이른다.

7. ①

이 작품은 이근삼의 ‘원고지’라는 희곡이다.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을 풍자하는 부조리극이다.

◆ 갈래 → 희곡, 단막극, 풍자극, 부조리극(상황극, 반극), 서사극
◆ 성격 → 반사실적, 서사적, 풍자적, 실험적(전통적인 리얼리즘의 극작술을 벗어남.)

◆ 배경 → 현대 어느 중년 교수의 가정

◆ 인물

* 교수 → 기계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인물. 한때는 꿈과 이상에 대한 정열과 희망을 품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현실과 아버지로서의 의무감에 짓눌려 사고 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하고 무의지적인 인물임.

* 처 → 인물 설정의 의도로 볼 때, 교수와 똑같은 부류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수와 자식 사이의 줄을 잇고 있는 매개자로서, 현실에 대한 인식 상태도 교수와 자식들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이다. 남편을 현실에 묶어 두는 감독관이지만, 역시 현실이라는 감독관에 의해 다시 감독을 당하는 점에서 교수와 같다.

* 장녀, 장남 → 육체적으로는 건강하나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구에 가득 찬 인물로 현대인의 현실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두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나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이들은 오직 육체적·물질적 욕망을 추구한다. 이들이 심하게 과장되어 있는 것은 현대인의 욕망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이다. 극의 해설자 역할을 하며 세속적·이기적인 인물이다.

* 감독관 → 관념적인 인물로, 교수를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강압적인 힘을 상징한다. 인간을 조종하고 억압하는 구속성의 상징.

* 천사 → 감독관과 상반되는 인물이다. 교수의 분열된 자의식으로, 잃어 버린 꿈과 희망을 상징함.

◆ 주제 → 현대인의 인간성 매몰과 부조리한 현실 상황

◆ 주제 →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 특성

1) 특별한 사건 전개 및 뚜렷한 갈등 양상 없이 극중 상황만을 보여줌.

2) 인물의 전형적 성격보다는 주제 의식의 표현에 중점을 둠.
3) 무대 장치, 소도구, 인물의 대사와 행동 등이 회극적으로 과장되어, 풍자와 반어적 의미를 드러냄.

8. ②

‘밖’은 [박]으로 발음되어 음운의 수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경우이다.

① ‘ㄴ’이 첨가 되어 [단뇨]로 발음된다.

③ ‘ㄴ’이 첨가 되어 [덴닙]으로 발음된다.

④ 접반침 중 ‘ㅅ’이 탈락하여 [넉]으로 발음된다.

9. ③

‘윽뚝뚝이’는 자기만 혼자 잘나고 영악한 체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0. ②

‘애처롭다’만 고유어 뒤에 접사 ‘-롭다’가 붙은 말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 뒤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11. ④

혼정신성(昏定晨省):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① 마부위침(磨斧爲針):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이르는 말.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

③ 호연지기(浩然之氣):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

12. ③

대화 중 ‘면담이 계시다고 하셨어요.’는 높일 필요가 없는 ‘면접’을 높여 오류가 난 문장이다. 이와 같은 것은 ③의 ‘서류’를 높인 것이다. ‘서류 나왔습니다’로 적어야 한다.

①은 모두 옳다.

②은 ‘목포역전’과 ‘앞’의 의미가 중복되었다.

④ 잡종범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므로 ‘국장님, 과장님께서 외부에 나가셨습니다’로 적어야 한다.

13. ④

송순의 ‘면앙정가(顰仰亭歌)’라는 가사이다. 전체적인 내용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지만 제시된 지문에서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

① 가사는 4음보의 율격이 드러나 있다.

②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③ ‘강호가도(江湖歌道)’란 조선 시대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면서 일컫는 시가 창작의 한 경향을 말한다.

14. ③

구지가

- ◆ 성격 : 집단적 건국 서사시, 집단 무가(주술요), 의식요
- ◆ 형식 : 4구체의 한역시가
- ◆ 표현 : 주술적 표현, 명령 어법
- ◆ 화자의 태도 : 명령적, 위협적
- ◆ 중요 시어 및 시구
 - * 거북 → 주술의 대상, 신령스런 존재, 초자연적 존재
 - * 머리 → 생명의 근원, 우두머리(군주, 왕)
 - * 머리를 내어라 → 주술의 궁극적 내용에 해당. "수로(首露)"라는 명칭과 연관됨.
 - * 구워서 먹으리 → 주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방법(위협)
- ◆ 주제 ⇒ 수로왕의 강림(降臨) 기원
- ◆ 짜임
 - * 1, 2행 - 부름을 통한 환기 / 명령을 통한 요구
 - * 3, 4행 - 가정 또는 조건을 통한 위협 또는 협박
- ◆ 별칭 : 영신군가(迎神君歌), 가락국가, 구지봉 영신가 등.
- ◆ 국문학사상 의의 :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적 서사시, 현존 최고의 주술적 무가

15. ④

틀린 표기가 없다.

16. ①

2016년 국가직 9급 문제와 똑같다.

이 대화에서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지 않다.

②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다.

③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에서 알 수 있다.

④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에서 알 수 있다.

17. ①

제시된 지문은 3인칭 시점이고 이와 같은 것은 ①이다. 나머지는 모두 1인칭 시점이다.

18. ③

이 글에서 '나'는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회유하고 있지 않다.

① 마지막 부분인 '대문을 열고는 보안등 하나 없는 철축의 어둠 저편으로 자진해서 삼켜져 버렸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이 글은 '나'가 관찰하는 '그'에 관한 이야기이다.

④ "이래 봐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यो."에서 알 수 있다.

19. ②

함께 간 TV 방송국 사람이 그림을 그려 보게 했다.

① '동물을 그린 아이는 단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③ '그러나 아프리카에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몇몇 보호 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에서 알 수 있다.

20. ④

이 글은 신표현주의 양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세 양식 중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한 양식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이다. 두 번째 양식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① '범위가 비교적 넓은 신표현주의 건축의 경향은 크게 세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이 경향이 열 환경과 연계된 유기성에 치중하면 생태 건축의 한 분파인 유기 건축이 되는 반면 형태에 치중하면 신표현주의에 머물게 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큰 방향은 현대 산업 사회의 기계 문명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총괄하는 반문명 운동의 성격을 지녔으며 표현주의의 자연 유기성에서 이상적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세부 경향에서는 기술 발전의 힘을 빌리고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차이도 보였다.'에서 알 수 있다.